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학

- 민족문학으로서의 일본어 글쓰기 -

金鶴童*

目次

머리말

1. 민족주의와 민족문학의 개념
2. 재일조선인 문학의 귀속성
3. 민족문학으로서의 일본어 글쓰기

맺음말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재일조선인 작가를 대표하는 김사량·김달수·김석범의 문학이 「민족문학」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문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그 용어가 가진 보편타당한 가치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족문학이 「민족주의」를 문학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족문학에 대한 고찰에 앞서 민족주의가 지닌 인류사적 가치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민족문학이라는 것이 「한국문학」중에서 특히 민족의 자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본 논문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일본어 작품이 한국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고찰해야 할 사항은 문학작품의 귀속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 충남대학교 강사, 재일조선인 문학 전공

기준이었던 속문주의(屬文主義)¹⁾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일본어로 쓰인 「재일조선인 문학」을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문학은 한국어로 쓰인 작품’이라는 통념을 깨기 위한 보편타당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논문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용어와 논점에 대한 선행적인 고찰을 통해서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재일조선인 작가들이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조선적인 것을 그려내려 했던 노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민족주의와 민족문학의 개념에 대한 고찰은 서양과 국내의 학자들의 학설을 바탕으로 각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속문주의에 의해 문학의 귀속을 결정해 온 그 동안의 관행에 대한 비판 역시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에 토대를 두고 그 불합리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대상인 세 사람의 재일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묘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통해 체득하게 된 이론을 검토하고, 각 작가의 작품 일부를 예로서 소개하여 그 실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민족주의와 민족문학의 개념

1-1. 민족주의의 개념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서유럽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계기로 출현했으며, 서유럽 세력의 확장으로 민족주의는 유럽은 물론이고 점차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한스 콘(Hans Kohn)은 「민족은 어떤 정치적 실체에 상응하는 하나의 정신상태이다」²⁾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민족주의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주권에는 이중의 중요성이 있다. 한 측면은 국가와 그 시민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민족주의라는 감정도와 유사하게 이중의 얼굴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그것은 민족 내부의 모든 동료 성원과의 생생한 공감으로 이어진다. 국제적으로는 민족의 범위 밖에 있는 동료 인간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신·증오로 표현된다.³⁾

1) 집필에 사용된 언어(문자)가 문학의 귀속을 결정한다는 이론

2) Israel Zangwill, *The Principle of Nationalities*, Watts, London, 1917, p. 39. ; 백낙청 엮음,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創作과 批評社, 1981, 40쪽.

3)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Macmillan, New York, 1956, p. 20. ; 주(2),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41쪽.

한스 콘은 민족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민족주의라는 이념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인간사회를 유지해 온 여러 가지 관념들, 즉 합리주의적 사고방식과 종교와 같은 관념들이 완충 작용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그러나 「서구 문명과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파시즘만이 민족주의를 그 극단적인 한계인 전체주의적 민족주의로 몰고 갔다」⁴⁾는 한스 콘 자신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시즘은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표출시킨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가진 양면성에 대하여 차기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으로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은 네이션의 통일이나 독립을 추구하는 단계이거나 약소국이 강대국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진보성과 정당성을 가진다 하겠으나, 일단 독립과 통일이 이룩된 뒤거나 그것이 강대국의 네이션적 이기주의로 변하는 경우에는 보수적이 되고 침략적이 되기 쉽다 하겠다.⁵⁾

차기벽은 이미 민족적 독립과 통일을 이룬 나라가 계속적으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국가적 이기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과 같이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민족주의가 진보성과 정당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서방 선진국의 학자들은 대개 내셔널리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제3세계의 지식인들은 내셔널리즘의 긍정적인 측면을 역설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제3세계 국가들이 서방 선진국과 같은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서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 가는 일이라 하겠다. 민족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근대민족국가의 건설을 끝낸 서방세계 학자들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3세계의 선진화를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별다른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프랑스의 사상가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 1823-1892)은 1870-1871에 있었던 프랑스와 프로이센(독일)간의 전쟁이 주로 독일 측의 편향된 민족주의에 의해 촉발된 점을 인식시키는 강연을 소르본 대학에서 가졌다. 1882년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Qu'est-ce qu'une nation?)」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민족은 이미 치러진 희생과 여전히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희생의 욕구에 의해 구성된 거대한 결속」이라는 말을 하여 진정한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4) 주(2),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41쪽.

5) 차기벽, 『民族主義原論』, 한길사, 1990, 86쪽.

현재 시점에서는 민족들의 존재가 좋은 것이며, 심지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세계에 하나의 법과 하나의 주인이 있다면 잃어버리게 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민족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6)

르낭은 이 글을 통해 민족주의 자체의 개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론을 창출해 내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사회에서는 민족주의에 대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 민족의 존재는 개개인의 존재가 삶의 영속적인 확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인민투표」라는 정의를 내림으로써, 무엇보다 민족에 소속된 개개인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며, 매일같이 인민투표를 해서라도 계속 변해가는 구성원들의 의식이 표명되고 이를 실천하는 민족주의가 진정한 「민족주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혈연과 언어, 역사적인 배경을 떠나 민족 구성원들의 소속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외 학자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장점보다 단점을 강조하려는 서양의 학자들의 이론에서조차 한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적인 인접성을 토대로 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언어와 문화를 같이하며 살아온 한민족의 고유성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동일민족으로서의 특성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으며, 제국주의적 통합에서 온존되어야 할 대상으로 확인된다.

비록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여 단결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수사적인 의미의 단일민족이라는 용어가 일시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타 민족에 대한 불필요한 배타적 감정을 조장하는 일면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한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아닌 만큼,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지어 비난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민족은 그 열기가 식어가는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민족단결의 사상적 토대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 민족문학의 개념

백낙청은 「民族文學 概念의 정립을 위해」라는 글에서 「(민족문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민족적 현실이 존재해야 한다」⁷⁾고 언급하고, 민족문

6) Ernest Renan, *Qu' est-ce qu' une nation?* 1882, 3, 소르본 대학 강연내용. ; 신형선 옮김, 『에르네스트 르낭-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80-82쪽.

7) 백낙청, 『民族文學과 世界文學』, 創作과 批評社, 1978, 124쪽.

학은 그 주체가 되는 민족의 「가능한 온갖 문학 활동 가운데서 특히 그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또한 「일제식민지 시대의 민족문학의 모든 문제가 식민지상황의 극복이라는 역사적인 과제와 연결되듯이, 남북이 갈라진 오늘날 우리 문학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통일의 문제」이고, 「분단시대 문학의 사상은 한마디로 통일의 사상이다」라는 말로 민족문학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리고 「분단시대 문학의 사상」이란 글에서 남북의 통일과 관련된 인식과 성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통일이 되고 안 되고를 남의 일로 생각한다거나, 설령 자기일로 생각하더라도 그야말로 <단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를 문학논의에 끌어들이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요 불쾌한 일이기 마련이다. (중략)

국내외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국토를 하나로 합치고 분열된 민족을 화해와 단합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민족의 존엄과 생존마저 유지하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주·평화통일>이라는 명제가 내포하는 온갖 인간적 과제의 복잡성이 민족의 입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실감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8)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경계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이의 실천을 위한 문학적 노력에서 쉽게 일탈하려는 사람들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분단문학」의 실천을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단순하고도 시대착오적인 일로 치부하고 넘긴다든지, 통일의 당위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이의 실천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다. 그러면서 분단시대의 문학을 한다는 것은 「민족자체가 지닌 능력과 문제점을 냉철히 인식하면서 격변하는 세계에 정확히 대응하는 지성의 작업이요,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민중적 각성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깨달음과 사랑의 실천에 의해서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역사창조의 작업」 9)이라고 강조한다. 즉, 이러한 각성에 의한 문학적 실천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족문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족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파생되는 문제로, 「한국문학」 또는 「국민문학」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과, 「세계문학」으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한국문단이 흘러가기 쉽다는 점이 지적되어 논란이 일기도 한다. 또한 민족문학의 토대를 이루는 민족주의의 융성은 국수주의의 팽배를 초래하고,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여 고립을 자초할

8) 주(7), 『民族文學과 世界文學』, 302, 303쪽.

9) 주(7), 『民族文學과 世界文學』, 303쪽.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백낙청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민족문학」이 「국수주의문학」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민족문학론은 민족이라는 것을 어떤 영구불변의 실체나 지고의 가치로 규정해 놓고 출발하는 국수주의적 문학론 내지 문화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실적으로 정치·경제·문화 각 부분의 실생활에서 「민족」이라는 단위로 묶여져 있는 인간들의 전부 또는 그 대다수의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학이 「민족문학」으로 파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때와 장소에 한해 제기될 뿐이다. 10)

백낙청은 민족문학을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존재의 가치가 변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환경이 변하는 경우 보다 높은 차원의 개념에 흡수된다는 점에서 국수주의 문학과는 차이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한마디로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그 대다수의 복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의식」 11)의 생성이 민족문학의 형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족문학의 개념을 외면하는 것 역시 민족의 생존과 존엄에 대한 현실적 도전을 망각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제국주의·식민지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저항은 민족문학에 있어 하나의 기본적인 생리와도 같은 것인데 이것은 선진국의 문학에서는 좀처럼 달성되지 못하는 어려운 경지」 12)라면서, 우리의 민족적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문학은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의 대열에서 이탈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현 단계 세계문학의 가장 선진적인 흐름인 제3세계 민족문학의 일익을 맡게끔 해주는 것」 13)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통해서, 참다운 민족문학의 실현이 어떻게 선진적인 「세계문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설한다. 즉 참다운 민족문학이란 「자기인식과 자기분열의 극복작업」 14)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선결 과제는 선진제국의 문학에서도 절실한 현안 문제이므로 민족문학이 곧 세계문학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백낙청의 견해는 국수주의를 두려워한 나머지 민족주의 자체를 경계하고 민족문학을 부정하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며 민족적 각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진정한 민족문학은 곧 세계문학과 통하는 것이므로 민족문학에 대한 기존의

10) 주(7), 『民族文學과 世界文學』, 125쪽.

11) 주(7), 『民族文學과 世界文學』, 125쪽.

12) 주(7), 『民族文學과 世界文學』, 133쪽.

13)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創作과批評사, 1985, 13쪽.

14) 주(7), 『民族文學과 世界文學』, 135쪽.

비판이 근거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앞으로 한국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백낙청과 함께 민족문학의 부흥을 줄곧 주장해 온 시인 고은(高銀)은 2001년에 심포지엄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문학이란 무엇인가(統一を志向する民族文學とは何か)」와 관련된 여러 견해를 밝혔는데, 민족문학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 했다.

민족문학이란 「통일의 도구」라는 주장을 해오셨다. 현시점에서 민족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무엇인가? (民族文學とは「統一の道具」だと主張してこられた。現時点で民族文學が果せる役割は何か。)

한반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역사적 현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단을 타파하고 민족을 하나로 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朝鮮半島にはいまだ完成されていない歴史的現實がある。その意味でわれわれに課された任務は、分斷を打破し民族を一つにする歴史をつくることだと思う。) 15)

민족문학의 역할에 대해 「분단을 타파하고 민족을 하나로 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는 간단하고도 단정적인 고은의 말 역시 지금까지 고찰해 온 백낙청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즉 현 상황의 한국에서는 「통일의 도구」로 기능하는 문학이 민족문학이라는 것이다.

이상으로 국내외의 학자들이 정의하는 「민족주의」 및 「민족문학」의 개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로서의 민족이 스스로의 생존과 안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천하려는 민족주의는 정당한 것이며, 이를 문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족문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 한반도의 상황은 엄연한 현실로서 민족문학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참다운 민족문학의 실천은 세계문학과도 통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배척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한국문학이라는 범주 안에 민족문학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면 문학가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며, 작품의 평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칫 민족문학 지상주의에 빠져들 우려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민족의 통일은 이러한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이뤄내야 할 보편적인 인류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문학계가 이 어려운 민족문학의 사명을 완수해냄으로써 민족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모범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15) 고은, 「統一の時代を生きる民族の歴史を」, 조선신보, 2001, 5, 5.

2. 재일조선인 문학의 귀속성

재일조선인 작가 김사랑·김달수·김석범의 작품들은 일제 식민치하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거나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일념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금까지 고찰해 온 「민족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남북의 대립이라는 정치적인 외압 이외에도 일본어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한국문학」의 범주에서 논의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한국문학은 한국어로 쓰인 작품이라야 한다는 속문주의 원칙이 지배하던 한국에서는 일본어로 쓰인 「재일조선인 문학」은 당연히 「일본문학」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의 귀속성을 이와 같은 속문주의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본어로 글을 쓰는 재일조선인 작가들 중에도 스스로의 작품이 일본문학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속문주의 원칙이 지닌 모순을 검토하여 일본어로 쓰인 재일조선인 문학이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당위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1. 속문주의에 대한 국내의 비판

속문주의 원칙이 지닌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국내의 인식 부족을 일깨워 한 민족 문화권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연구자로 홍기삼이 있다. 그는 「문학의 기본조건이 언어인 한 한국문학은 어디까지나 한국어로 쓰인 것이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의 부당성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로, 「재일조선인 문학을 일본문학에서는 일본문학의 기술 대상이 아니라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문학의 범주 밖의 것」¹⁶⁾으로 치부해 버리는 바람에 재일조선인 문학은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재일조선인 문학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이한창은 「우리 문학은 우리 민족어로 써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연구자들이 이들 작품을 우리의 문학권 밖으로 방치하여 왔다」¹⁷⁾면서, 이는 재일조선인 문학의 귀속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한창은 「국문학이란, 한국 사람의 생활을 역사상 각 시기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표현방법인 정음, 차자, 한문을 통하여 형상적으

16) 홍기삼 편, 『재일한국인 문학』, 솔, 2001, 11쪽.

17) 이한창,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동포문학 연구」, 『일본어문학』 제3집, 한국일본어문학회, 1997, 6. 248쪽.

로 창조한 문학」¹⁸⁾이라는 한국문학계의 일반화된 논리를 들면서 「문학의 근거를 기록된 문자만을 가지고 따질 수 없게 되었」¹⁹⁾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속문주의’는 민족어로 민족문학의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는 이상일 뿐」이라는 말로 속문주의의 비현실성을 비판한다. 그리고 「재일동포 문학의 귀속문제를 문학의 주체, 내용, 독자층, 문자의 네 가지 요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²⁰⁾며, 현재의 국문학계가 문자만을 가지고 귀속문제를 따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들 네 가지 근거에 너무 집착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재일조선인 문학의 귀속문제는 「배제의 논리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체, 내용, 독자층, 문자의) 네 가지 기준을 상호 보완하고 부족한 점을 포용하고 인정」²¹⁾해주는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2. 속문주의에 대한 일본 연구자들의 견해

오카자키 요시에(岡崎義惠)는 『日本の 文芸』라는 저서에서, 예술로서의 문학이라는 의미로 「문예」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서, 「일본문예」에 대한 정의를 1) 일본인이 지은 문예, 2) 일본어로 지은 문예, 3) 일본적 특색이 나타나 있는 문예²²⁾와 같이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일본적 특색이 나타나 있는 문예」와 같이 내면적인 의미로서의 일본문예로 규정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어로 짓는다는 것은 대체적인 표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로 속문주의가 지닌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외국인이 일본어로 지은 것도 일본문예인가, 또 그와 반대로 일본인이 지은 것이라 하더라도 외국어로 지은 것, 즉 영시(英詩), 영시류(英詩類)는 일본의 문예로부터 아주 제외되는가」²³⁾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오카자키의 이와 같은 주장을 재일조선인 문학에 대입시키면, 재일조선인이 일본어로 쓴 문학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한국문학이 될 수 있으며, 문학의 귀속성의 중요한 기준은 문학의 내용이라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평론가인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는 1948년도에 출간된 김달수의 『후예의 거리(後裔の街)』 「발(跋)」에서 「(이작품은) 조선민족의 문학임과 동시

18) 김광순 외, 『한국문학개론』, 경인출판사, 1996, 12쪽 재인용.

19) 주(17), 『일본어 문학』 제3집, 253쪽.

20) 주(17), 『일본어 문학』 제3집, 249쪽.

21) 주(17), 『일본어 문학』 제3집, 256쪽.

22) 岡崎義惠著·장남호·임종석訳, 『日本の 文芸』, 시사일본어사, 1991, 서문.

23) 주(22), 『日本の 文芸』, 서문.

에 일본문학의 하나」²⁴⁾로 규정하였으며, 1965년 무렵에는 「재일조선인의 일본어에 의한 문학은 역사적인 특수성에 의하므로, 문학의 국적은 그 언어에 귀속된다는 사고방식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²⁵⁾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재일조선인 문학의 귀속 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속문주의적 입장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연구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2-3. 속문주의에 대한 재일조선인 작가의 비판

김석범은 재일조선인 작가 중에서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와 자신의 일본어 글쓰기에 대해 가장 깊은 사고를 해온 사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재일조선인 문학의 귀속성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써왔다.

언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의 전달방법입니다.(중략) 「재일조선인 문학은 일본문학이다」라는 발상은 언어속문주의입니다. 언어 이외에 문학을 규율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됩니다.

(言語というのは、極端な言い方をすればひとつの伝達表現の方法です。(中略)

「在日朝鮮人文學は日本文學だ」という發想は、言語屬文主義ですよ。言語以外に文學を律するもの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²⁶⁾

김석범은 「문학은 언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일어로 쓴 『火山島』는 일본문학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물론 『火山島』가 일본어로 쓰였다고 해서 일본문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상식을 초월하는 장편의 내용 속에는 일본인이 거의 등장하지도 않을뿐더러 조선적인 유교의 전통이 지배하고, 무당이 굿을 하며, 제주도의 토속적인 옷을 입고 말을 하면서 <4·3사건>이라는 소용돌이를 헤쳐 나가는 민중들의 끈질긴 투쟁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석범은 자신과 같은 재일조선인 작가들이 생산한 일본어 작품이 한국문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24) 小田切秀雄, 「この本のこと」, 『後裔の街』, 朝鮮文芸社, 1948, 240쪽.

25) 任展慧, 「小田切先生と〈在日朝鮮人文學〉」 『小田切秀雄の文學論争』 「囲む会」編, 2005년 10월, 277쪽.; (원문내용: 在日朝鮮人の日本語による文學は歴史的な特殊性により、文學の国籍はその言語に帰属するという考え方に拘束されることはない、と明言されたのである.)

26) 金石範, 「文化はいかに国境を越えるか」, 『国境を越えるもの—「在日」の文學と政治』, 文芸春秋, 2004, 194, 195쪽.

그러면 재일조선인 문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일본문학도 아니고, 한국에서 온 학자가 지적하듯이 이른바 한국문학, 즉 조선문학도 아니다.(중략) 여러 분석이 필요하겠습시다만, 결국 완전히 「디아스포라」적 성격을 가진 문학이지요. 결국은, 이산, 추방, 혹은 연행된, 그러한 피압박자이지요. 일본어, 이른바 타국어 속에서 표현을 찾아내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부터 탄생한 문학입니다. (すると在日朝鮮人文學とはいったい何か。日本文學でもなければ、韓國からきた文學者が指摘するようにいわゆる韓國文學、つまり朝鮮文學でもない。(中略) いろいろな分析が必要なんですけれども、いずれにしても、完全に「ディアスポラ」的な性格を持った文學ですね。結局は、離散、追放、あるいは連行された、そういう被壓迫者ですね。日本語、いわば他國語のなかに表現を見出している存在。そういう存在から生まれてきた文學です。) 27)

망명자가 생산하는 문학의 언어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내용은 망명자 자신들의 처지와 그들이 속한 민족에 관한 것을 쓰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망명자의 문학을 그냥 「망명자 문학」이라는 명칭으로 규정해 버릴 수 없듯이, 망명자로서의 재일조선인의 문학을 「재일조선인 문학」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김석범 자신의 문학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 타국어로 쓰인 이들의 문학을 서둘러 한국어로 번역하여 국내의 독자와 평론가들에게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문학을 망명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는 김석범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대작 『火山島』가 아직까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고 있어서, 국내의 독자나 평론가들이 접하기 어려운 현실은 재일조선인 문학을 망명문학으로 떠들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으로 재일조선인 문학의 귀속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연구자의 주장과 재일조선인 작가의 입장을 고찰해 보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언어만으로 문학의 귀속 문제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며, 누가 무엇을 썼는가와 같이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지금까지 문학의 귀속 문제를 결정하는 편리한 기준으로 작용했던 속문주의는 더 이상 절대적인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7) 주(26), 『国境を越えるもの—「在日」の文学と政治』, 194, 195쪽.

3. 민족문학으로서의 일본어글쓰기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써내겠다는 의식적인 도전은 김사량의 작가 정신에서 뚜렷이 엿보이고 있으며, 김석범은 꾸준한 노력 끝에 『火山島』로 그 결실을 맺는다. 그런데 같은 조선의 민족주의 작가로 분류할 수 있는 김달수의 경우는 이 두 작가에 비해서 일본어에 의한 작품 활동에 대해 그다지 갈등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작품화하려는 김사량·김달수·김석범의 노력을 통해서 표출되는 일본어글쓰기의 의미와 그 의의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1. 김사량의 일본어글쓰기

김사량은 1936년 동경제국대학 독일문학과에 입학한 뒤 동인지 『堤防』에具珉이란 필명으로 생활주변의 짙막한 수필 「雜音」을 발표하였다. 이 짧은 수필에서는 조선적인 것을 일본어로 표현하는 어려움에 대한 번뇌가 엿보인다.

조선의 현실을 충실하게 써보고 싶다. 얼마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 진실하게 형상화될 수 있을지 나는 매우 두렵다. (중략) 차라리 문장에서 일본어를 없애버릴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모국어를 가나문자로 딱딱하게 직역해서 읊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朝鮮の現實を忠實に書いてみたい。どれ位正鵠に把握出来るか、どれ程眞實ある形象化が爲されるか、俺には全くおつかない。(中略) いつそのこと文章から日本語を殺そうか等とさへ考えてみる。母國語を仮名文字で生硬な直譯に移すとしたら、果たしてどんなものだろう。) 28)

이러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김사량은 일본어로 훌륭한 조선적인 문학작품을 써낼 수 있는 작가로 성장한다. 그리고 1939년 『文芸首都』에 발표한 「朝鮮文學風月録」이라는 글에서 「일부러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내지어(일본어)로 글을 써야 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매우 적극적인 동기가 있어야 한다」 29)며, 그 동기라는 것은 조선의 문화와 생활을 일본의 독자층에 알리거나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28) 『金史良全集 IV』, 河出書房新社, 1973, 53쪽.

29) 金史良, 「朝鮮文學風月録」, 『文芸首都』 1939年6月号. 『金史良全集IV』, 河出書房新社, 1973, 11쪽. (원문 내용 : わざわざあらゆる犠牲を払って内地語で書きものをするといふ場合には、その当人に非常に積極的な動機がなければならない.)

김윤식은 이러한 김사량의 작가적 태도와 이후의 중국 연안으로의 탈출을 결부시켜 「작가 김사량의 글쓰기 욕망이 일어 창작을 엿보게 했다면, 이를 물리치게 한 것은 국민국가의 문학관이었다」³⁰⁾는 분석을 한다. 김윤식이 말하는 「국민국가의 문학관」이라는 것은 국어로 쓰지 않으면 국민(민족)국가의 문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말하는 것인데, 뒤늦게 이를 깨달은 김사량이 일본어글쓰기를 포기하고 연안으로 탈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로써 나타난 김사량의 행적을 「국민국가의 문학관」이라는 개념과 결부시킨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사량이 작가적 욕망을 지니고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렵겠지만, 일본어글쓰기를 계속한 것은 나름의 저항 의식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국이 해방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겠는데, 일본어글쓰기로 저항을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연안으로 탈출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김사량이 일본어 창작과정에서 안고 있던 고뇌가 국민국가에서 절대시하는 언어 문제와 유사했으리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해방되어 조선으로 귀국한 김사량은 1945년 12월에 참석했던 어느 좌담회에서 이태준으로부터 일본어글쓰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자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하자면 문화인이란 최저의 저항선에서 二步退却 一步前進하면서 싸우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썼느냐가 議題가 될 문제이지 좀 힘들어지니까 또 옷 밥이 나오는 일도 아니니까 속 들어가 팔짱을 끼고 앉았던 것이 드높은 문화인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하는 데는 나는 반대입니다. ³¹⁾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김윤식은 저서 『한일문학의 관련양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가 논의될 문제’라고 한다면, 한국문학이란 것이 消滅한 자리에서의 이야기」³²⁾라는 말로 김사량의 자기변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한다. 이러한 비판은 조선의 작가로서 일본어글쓰기를 한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사량이 일본어를 좀 더 중요한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분명한 의사표현

30)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93쪽.

31) 「문학자의 자기비판」, 『우리문학』, 1946, 창간호 45쪽. 김윤식,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一志社, 1974, 50쪽.

32) 주(31),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50, 51쪽.

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일본어의 속박을 벗어나 그 내재하는 보편성을 추구하여 조선적인 것을 그려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김석범은 김사량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사량은 틀림없는 조선적인 작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선일체」 「황민화」와 같은 일본화의 거대한 정치의 흐름 속에서, 일본어로 쓰면서 더구나 빼앗겨가는 민족적인 것을 잘 지탱해냄으로써 마침내 저항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실로 조선적인 작가였다.

(一言にしていえば、金史良はまさに朝鮮的な作家だと私は思っている。「内鮮一体」「皇民化」のつまり日本化の大きな政治の流れの中で、日本語で書きながらしかも奪われてゆく民族的なものをよく支えにすることによってついに抵抗をまっとうしえた点でまさに朝鮮的な作家なのだ。) 33)

김석범은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묘사하는 작가적 태도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한계를 넘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작가인 만큼 상당히 설득력 있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겠다.

평론가 임현영은 김사량의 작품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는 일어로 쓴 소설에서도 언제나 민족문제를 부각시켰는데 그렇다고 상투적인 약소민족의 아픔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추구에까지 천착한 점이 식민통치국과 피식민지의 두 나라 대중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힌 것 같다. 이 점은 또한 민족문학의 지평을 확대시킨 공로이기도 하다.³⁴⁾

임현영은 일본어로 쓴 김사량의 작품을 아예 민족문학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일본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실존적 추구로서의 민족문학을 실천하여 그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김사량의 일본어 작품 『太白山脈』이 2006년 1월에 우리말로 번역 출판되었는데³⁵⁾,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조선적인 작품인지 쉽게 알 수 있다.

アリアリラン スリスリラン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33) 金石範, 「金史良について—ことばの側面から」,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1972, 169쪽.

34) 임현영, 「암흑기의 ‘굴절된 삶’ 읽기—김사량의 작품세계」, 『한국소설문학대계17—강경애·김사량』, 동아출판사, 1995, 553쪽.

35) 김사량著·김학동訳, 『김사량의 태백산맥』, 노트북, 2006.

アラリガ ナンネーエ	아라리가 님네-에
アリラン峠を越え越え行く	아리랑 고개를 넘어 넘어 간다
いとしい君の 歸りには	정든님이 오셨는데
言の葉も 凍てついて	인사를 못해
ヘンジュチマ	
前掛け 口に啜へ	행주치마 입에 물고
口だけ にんまり 36)	입만 방긋 37)

김사량의 『太白山脈』에는 우리의 「아리랑」과 「각설이 타령」 등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노래와 문장들을 한국어로 복원하거나 번역해 놓고 보면 완벽한 우리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작품을 두고 일본문학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본고의 고찰대상의 하나인 김사량의 작품은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훌륭한 한국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는 일본어가 조선적인 것을 그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3-2. 김달수의 「수단」으로서의 일본어글쓰기

김달수는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신의 작품 활동이 일본어글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다지 큰 모순점을 느끼지 않았으며, 주변의 의혹이 담긴 시선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가적 태도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어를 단지 조선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조국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달수의 작품 『玄海灘』을 읽고 「조선민족이 받은 고통,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아직 사라지지 않는 조선민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³⁸⁾라는 편지를 보내온 여성 독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 내용 중에 「조선인인 선생님이 일본에서 더구나 일본어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³⁹⁾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김달수의 답장은 다음과 같았다.

일찍이(지금도 여전히 약간은 그렇습니다만) 나는 이 불평등으로 인하여 일본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36) 『金史良全集 II』, 河出書房新社, 1973, 309쪽.

37) 김사량著·김학동訳, 『김사량의 태백산맥』, 노트북, 2006, 129쪽.

38) 金達壽, 「『玄海灘』について、あるサークルへの答」, 『金達壽評論集 上 わが文学』, 筑摩書房, 1976, 40쪽.; 초출(初出)은 『溶岩』 제29호, 1955년.; (원문 인용) 朝鮮民族のうけた苦しみ、そして今日もまだ消え去らない朝鮮民族の苦しみが少しでも解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

39) 주(38), 『金達壽評論集 上 わが文学』, 40쪽.; (원문 인용) 朝鮮人であるあなたが、日本にいてしかも日本語で小説を書いているのはどうしてでしょうか.

일본어를 특별히 다른 곳에 써먹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들 민족의 평등, 인간들 사이의 이해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かつて(いまもなお少しそうですが)私はこの不平等のゆえに、この日本語をこんなに「上手」におぼ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しかし、私はこの日本語を、何かほかのことに役に立てようとは思いません。それを、私たち民族の平等、人間どうしの理解のために役立てたいと思います。) 40)

김달수는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어로 소설을 쓰고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해를 도모하여 불평등한 두 민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김달수가 주장하는 글쓰기는 결국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배를 한 것에 대한 비판과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는 현실의 고발, 그리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국내에서 정의하는 「민족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어쨌든 김달수는 그의 많은 작품에서 과거 식민치하의 왜곡된 역사와 분단된 조국의 현실, 그리고 조선적인 전통과 풍습을 그려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조선적인 것을 일본어로 표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1948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최초의 장편 『후裔의 거리(後裔の街)』의 재판(再版)에 수록된 「작가의 메모(作家のおぼえがき)」에 잘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조선어 문제인데, (중략) 예를 들면 식모(食母-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가정부를 말하는 것이지만)와 같은 단어에는 조선어 발음을 가나로 덧붙였고, (조선어에) 작자가 임의로 붙인 한자는 저고리(上衣)와 같이 괄호를 사용했다.

シングモ

(つぎに朝鮮語であるが、(中略)たとえば、食母(これはいうまでもなく女中さんのことであるが)といったようなものにはルビを振り、作者のあて字の場合、チョクリ(上衣)などにはカッコをつかった。) 41) (밑줄 ; 인용자)

김달수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할 무렵의 글로, 자신의 작품 속에 조선적인 것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김달수의 작품은 대부분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등장인물도 조선인이며, 제사 용어라든가 일반적인 인사말과 같은 단어는 조선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일본어로 표현했지만 그 내용이나 표기상의 면에서 일본문학이라 보기에는

40) 주(38), 『金達壽評論集 上 わが文学』, 40쪽.

41) 金達壽, 『後裔の街』 재판(再版), (株)世界評論社, 1949, 249쪽.

어려운 작품이 대부분이다.

「叛亂軍」은 1948년의 <여·순사건>을 계기로 집필되어 1949년에 발표되었는데, 이후의 김달수 문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 속에는 주인공인 仁奎와 함께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 대한 투쟁을, 남쪽의 민주주의를 받드는 노인 이승만과 북쪽의 공산주의를 받드는 젊은 김일성과의 대립항쟁이라면서 「벌써 70을 넘긴 노인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젊은이한테 맡기고 얼른 물러나야지」라고 말하곤 한다.

リスンマン
(そして李承晩政府にたいするたたかいを、南のみんしゅしゅぎを奉ずる年寄り
キムイルソン
の李承晩と、北のきょうさんしゅぎを奉ずる年若い金日成との對立抗爭だとして、「もう、七十をすぎたという年寄りがこれからの世の中に何ができるというのか、若いものにまかせてさっさと退くべきだ」というのである。) 42)

어머니는 아들이 재일조선인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내심 자랑스럽게 여기며 빨리 고국에 돌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장면의 일부이다. 일본어로 쓰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모자간의 대화에서는 조선적인 정취가 물씬 풍긴다.

김달수는 일본어글쓰기로 조선적인 것을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 큰 모순은 느끼지는 않았으며, 설령 느끼고 있었다 해도 조선어로 창작을 할 수 있을 만큼 조국의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김사랑이 느끼고 있던 갈등과는 그 차원을 달리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일본어글쓰기를 통하여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 고발 및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민족의 자존과 통일에 대한 자신의 염원을 표출시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3. 속박을 벗어나기 위한 김석범의 일본어글쓰기

김석범은 1957년 「까마귀의 죽음(鴉の死)」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뒤, 1960년까지 「이제는(これから)」 「구렁텅이(どん底)」 「똥과 자유(糞と自由と)」 등을 발표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글 『화산도』를 1965-1967년 사이에 『文学芸術』을 통해 9회까지 연재하다 중단한 것 말고는 거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0년이 되자, 「언어

42) 金達壽, 「叛亂軍」, 『金達壽小説全集 一』, 筑摩書房, 1980, 302쪽.

와 자유(言語と自由)」43), 1971년에는 「〈왜 일본어로 쓰는가〉에 대해서(〈なぜ日本語で書くか〉について)」44) 「일본어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좌담〉(日本語で書くことについて)」45)와 같은 평론 등을 발표하며 다시 일본어글쓰기를 시작한다. 즉 10년에 가까운 침묵기간은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갈등의 세월이었던 셈이다.

이후의 김석범은 보다 넓고 깊어진 일본어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어를 수단으로 삼아 소설 창작을 한 장혁주와 김사량을 나름대로 평가한다. 그러나 김달수가 자신의 일본어글쓰기를 「일본인의 잘못된 조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무기」46)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한다. 조선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김달수가 조선어와 일본어 중에 양자택일이라도 하듯이 일본어를 무기로 삼아 글을 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어로 인해 이중의 속박을 겪고 있는 재일조선인 작가는 「일본어와 관계된 틀 속에서 자유의 유무를 확인해 가야」47)하고, 이는 언어의 논리적인 면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 것」48)이라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다. 바꿔 말하면 재일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창작 할 때 우선 봉착하는 문제로, 조선적인 것을 그려내는 데 있어 일본어가 가진 독특한 개성이 작용하여 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전의 지배자의 언어로 재일조선인이 문학을 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윤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갖추고 있던 김석범은 김달수의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일본어글쓰기에 대하여 그의 조선어 능력의 유무를 떠나 문제의 본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다룬 『火山島』를 일본어로 집필한 김석범은 과연 자신이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일까. 그의 저서 『국경을 넘는 것-「재일」의 문학과 정치』49)에서는 일본어의 개별성을 일본어 안에 내재하는 보편성으로 초월하여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43) 「人間として」3호, 1970년 9월. 주(33), 『ことばの呪縛』에 수록.

44) 「文学的立場」5호, 1971년 7월. 주(33), 『ことばの呪縛』에 수록.

45) 「文学」1971년 11월호. 주(33), 『ことばの呪縛』에 수록.

46) 金石範, 「在日朝鮮人文学」, 『岩波講座 文学8 表現の方法 5—新しい世界の文学』, 1976년 8월, 284, 285쪽.

47) 金石範, 「후기」, 주(33), 『ことばの呪縛』, 291쪽.; (원문내용: 日本語との関係におけるワクの中での有無を確かめてゆかねばならない.)

48) 주(33), 『ことばの呪縛』, 291쪽.; (원문내용: 倫理的な問題としてとらえねばならないもの.)

49) 주(26), 『国境を越えるもの—「在日」の文学と政治』.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것을 보편화해 가는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それは、簡単に言えば、想像力ですね、イメージーションを通して日本語の持っている個別的なものを普遍化していくという操作がなされていくわけなんです。) 50)

일본어가 가진 개별적인 것이란, 각 단어와 문장이 갖는 일본의 독특한 정서나 감각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단어는 보편적인 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면을 살려서 조선적인 것을 그려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집필된 『火山島』는 작가 자신의 확신에 찬 반문처럼 「일본어로 쓴 것이지만 과연 일본문학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토속적인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상황을 그려낸 작품 속에 일본적인 색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일본어에 의해 조선적인 것을 담아내려는 김석범의 노력은 1970년에 발표한 『万徳幽靈奇談』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이 작품은 재일조선인인 자신이 일본어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오랜 갈등의 세월을 보낸 후에 발표한 것인데, 내용 중에 주인공 「만덕」이 제주도에 전해 내려오는 「오누이의 전설」을 떠올리는 장면이 묘사된 곳이 있어 소개한다.

어느 날 멀리 있는 언덕 기슭의 밭으로 나갔던 두 사람은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다. (중략) 그래서, 지계를 짚어진 채 짚신 끈을 동여매느라 지체된 남동생이 뒤에서 누나를 따라가게 되었다. (중략) 남동생은 감옷이라 불리는 삼베옷에 감물을 들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누나는 그날따라 시원하게 얇은 삼베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다. 젖은 삼베옷이 찰싹 달라붙은 살결이 비쳐보였다. 그리고 젖은 치마도 허리에 달라붙어 몸의 선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ある日遠い丘の麓の畑へ出かけていた二人は歸る途中ではげしい驟雨にであつた。 (中略) で、^{チゲ}支杖を背負い濡れた草靴の紐をしっかりとくり直すのに手間どつた弟は、後から姉を追うことになった。弟は柿衣と呼ばれる麻布を柿汁で染めた^{チヨゴリ}労働服を着けていたが、姉はその日に限って涼しい薄い麻の上衣を着けていた。濡れた麻の布地をびったり吸いとった濡れた肌が透けて見えた。そして濡れた^{チマ}裳も腰の部分にへばりついて軀の線が動くのである。) 51)

50) 주(26), 『国境を越えるもの—「在日」の文学と政治』, 203-205쪽.

삼베옷을 입은 채 비를 맞은 두 남매의 모습, 누나의 얇은 치마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은 모습과 지계를 짊어지고 그 뒤를 따르는 남동생의 모습이 그림처럼 머릿속에 그려진다. 일본어로 쓰인 이 글에서 일본어로 인한 한계가 느껴지는 묘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火山島』는 <제주 4·3 사건>이라는 주제를 다룬 일본어 소설이지만 제주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장면의 묘사가 많다. 그런데 이 작품이 일본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어로 된 소설을 읽는 느낌을 주는 것은, 이와 같은 조선적인 정경의 묘사와 더불어 한국적인 일본어 표현을 적절히 조화시킨 문장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엌아—!” 부친의 목소리는 취기를 띤 채 격해져 있었다.

“예—”(중략) 선옥이 불룩한 배를 흔들며 급하게 이쪽으로 왔다.

“아이고, 주인마님……” 부엌이가 외쳤다.

(「ブオガー!」 父の聲は、酔いをおびて激していた。

「イエー」(中略) 仙玉が大きな腹を揺らし、急ぎ足でこちらへやって来た。

「アイゴ、奥様……」 ブオギが叫んだ。) 52)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엌이」라는 호칭은 물론이거니와 「예」나 「아이고」와 같은 대답과 감탄의 말을 모두 가타카나를 사용하여 한국어 발음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오빠」처럼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친근한 단어들 역시 「オモニ」와 「オッパ」와 같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다만 해당 단어들에 처음 등장할 때에 한해서 괄호 안에 그 의미를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시의 조선의 경찰서 취조실이라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 자식아」라는 한국어 표현을 「イ・チャシガ、きさま」, 「이 송사리새끼」를 「イ・ソンサリセッキ、この雜魚ども」 53)와 같이 가타카나로 한국어 발음을 표기한 뒤,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 단어를 연이어 표기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또한 한국의 격언 등을 일본어로 바꾸어 문장의 표현을 풍부하고도 한국어적인 분위기로 연출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그 중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등장하는 문구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설마가 사람 잡는다(“まさか、が人を殺す) - 『火山島』 제4권 493쪽

51) 金石範, 『万徳幽霊奇談』, 筑摩書房, 1971, 93, 94쪽. 初出, 『人間として』 제4호, 1970.

52) 金石範, 『火山島 VI』, 文芸春秋, 1997, 494쪽.

53) 金石範, 「豚の夢」, 『すばる』, 2005년 7월호, 120쪽.

- 방귀 핀 사람이 화를 낸다(屁をひったやつが腹を立てる) - 제5권 8쪽
-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足のない言葉⁵⁴が千里を走る) - 제6권 257쪽

이러한 격언이나 속담 중에는 일본에도 내용이 유사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표현 자체는 한국의 것을 번역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자만 일본어일 뿐이지 소설의 내용이나 분위기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일은 없다. 이는 언어의 열려있는 보편적인 측면을 살려서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그려내려는 작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하겠다.

1957년에 일본어로 쓴 「까마귀의 죽음」을 통해 <제주 4·3 사건>의 형상화를 시도했던 김석범은, 19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어 글쓰기를 중단하고 한글 창작에 매달렸다. 그러나 독자층 확보의 어려움과 조직의 지나친 관여⁵⁵)로 이를 중단하고 일본어글쓰기에 대한 갈등의 시간을 보내다가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자신이 생겨서 1970년대부터 일본어 글쓰기를 시작했다」⁵⁶)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万徳幽靈奇談』에 잘 나타나 있으며, 제주민중의 역경과 투쟁을 그려낸 『火山島』에서 민족적 특성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본어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본문학」이 될 수 없으며, 문학의 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속문주의의 불합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김석범의 문학은 「무엇을 위해 어떠한 내용을 썼는가」가 문학의 귀속성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될 경우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며, 그 자신 민족문학을 실천해온 작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맺음말

본고는 재일조선인 작가 김사량·김달수·김석범의 문학이 민족문학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민족문학의 개념을 고찰함과 동시에, 민족문학은 민족주의를 문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민족주의의 인류사적 가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안정된 근대국가의 형성을 위하여 민족의 통합

54) 원문에는 「足のない馬(マル)が千里を走る」와 같이 말을 동물의 말(馬)로 표기했으나, 이는 말(言葉)의 잘못으로 생각됨.

55) 宋惠媛, 「金石範の朝鮮語作品について」, 『金石範作品集Ⅰ』, 平凡社, 2005, 562쪽.; 송혜원은 “조종련 조직에 속해서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선어 창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종련 및 평양의 문예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56) 주(26), 『国境を越えるもの—「在日」の文学と政治』, 205쪽.

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족주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도모해야 할 단계에 있으며, 이를 문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족문학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문학이 민족문학이라면, 본 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일조선인 작가 김사랑·김달수·김석범의 문학은 대부분 이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일본어글쓰기를 통한 조선적인 것에 대한 구현 노력을 고찰하였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작품의 일부를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한국문학은 한국어로 쓴 문학이라는 통념에 의해 일본어로 쓴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민족문학은 한국문학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거나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내외 연구자들의 주장과 견해의 고찰을 통하여 언어만으로 문학의 귀속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속문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재일조선인 문학을 한국문학의 범주 안에서 논의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민족주의와 민족문학의 개념을 검토하여 이들의 용어가 보편타당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언어만으로 문학의 귀속문제를 결정하려는 태도의 불합리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민족문학의 실천을 위한 노력과 그 실제적인 예로서의 작품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의 목적은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일본어에 의한 조선적인 것의 구현 노력이 바로 국내에서 정의하는 민족문학의 실천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며, 이는 재일조선인 문학이 한국문학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고 평가되어야 함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参考文献】

- 김광순 외, 『한국문학개론』, 경인출판사, 1996, 12쪽.
- 金達寿, 「『玄海灘』について」, 『金達寿評論集 上 わが文学』, 筑摩書房, 1976, 40쪽.
- 金達寿, 『後裔の街』 재판(再版), (株)世界評論社, 1949, 249쪽.
- 金達寿, 「叛乱軍」, 『金達寿小説全集 一』, 筑摩書房, 1980, 302쪽.
- 『金史良全集 II』, 河出書房新社, 1973, 309쪽.
- 『金史良全集 IV』, 河出書房新社, 1973, 53쪽.
- 金史良, 「朝鮮文学風月録」, 『金史良全集IV』, 河出書房新社, 1973. 11쪽.
- 金史良著· 김학동訳, 『김사랑의 태백산맥』, 노트북, 2006, 129쪽.
- 金石範, 「金史良について—ことばの側面から」,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1972, 291쪽.
- 金石範, 「在日朝鮮人文学」, 『岩波講座 文学8 表現の方法 5』, 1976년 8월, 284, 285쪽.
- 金石範, 『万徳幽霊奇談』, 筑摩書房, 1971, 93, 94쪽.
- 金石範, 『火山島 VI』, 文芸春秋, 1997, 494쪽.
- 金石範, 「豚の夢」, 『すばる』, 2005년 7월호, 120쪽.
- 金石範, 「文化はいかに国境を越えるか」 『国境を越えるもの—「在日」の文学と政治』, 文芸春秋, 2004, 194, 195, 203-205쪽.
- 김윤식,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一志社, 1974, 50, 51쪽.
-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93쪽.
- 고은, 「統一の時代を生きる民族の歴史を」, 조선신보, 2001, 5, 5.
- 백낙청, 『民族文学과 世界文学』, 創作과 批評社, 1978. 125, 133, 135, 301, 302쪽.
- 백낙청 엮음,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創作과 批評社, 1981, 40, 41쪽.
-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II』, 創作과 批評社, 1985, 13쪽.
- 宋惠媛, 「金石範の朝鮮語作品について」, 『金石範作品集 I』, 平凡社, 2005, 562쪽.
- 신행선 옮김, 『에르네스트 르낭-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80-82쪽.
- 이한창,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 동포문학 연구」, 『일본어 문학』 제3집, 한국일본어문학회, 1997, 6. 248, 249, 253, 255, 256쪽.
- 任展慧, 「小田切先生と〈在日朝鮮人文学〉」 『小田切秀雄の文学論争』, 2005년. 277쪽.
- 임현영, 「암흑기의 ‘굴절된 삶’ 읽기—김사랑의 작품세계」, 『한국소설문학대계17—강경애·김사랑』, 동아출판사, 1995, 553쪽.
- 차기벽, 『民族主義原論』, 한길사, 1990, 86쪽.
- 홍기삼 편, 『재일한국인 문학』, 솔, 2001, 11쪽.
- 岡崎義恵著· 장남호· 임중석訳, 『日本の 文芸』, 시사일본어사, 1991, 서문.
- 小田切秀雄, 「この本のこと」, 『後裔の街』, 朝鮮文芸社, 1948, 240쪽.

要 旨

本稿の目的は在日朝鮮人作家の金史良・金達寿・金石範の文学が民族文学であることを立証するところにある。従って、民族文学の概念の考察と同時に、民族文学は民族主義を文学的に支えているとの立場から民族主義の人類史的価値をも検討した。

祖国の完全な独立と民族の統一のための文学が民族文学であるとすれば、本稿の研究対象としている3人の在日作家の文学のほとんどはこの範疇に属す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

本稿では民族主義と民族文学の概念の検討を通じて、こうした用語に含まれている普遍的な価値を究めたほか、言語だけで文学の帰属を決めようとする属文主義の不合理さについても考察をこころかけた。また、在日朝鮮人作家の民族文学の実践のための努力と、その実例としての作品の検討も試みた。

このような研究の目的は、在日朝鮮人作家の日本語創作による朝鮮的なものの具現の努力こそ韓国でいう民族文学の実践とその軌を一に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立証し、在日朝鮮人文学が韓国文学の範疇のなかで論議され、そして評価されるべくことを促すところにある。

キーワード： 在日朝鮮人文学、民族主義、民族文学、属文主義、
金史良、金達寿、金石範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301-773)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삼부아파트 1단지 6동 53호

電 話 : 042-523-2709, 016-413-5841

e-mail : ulsasuca@hanmail.net